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운영 방향성 모색을 위한 좌담회 내용 공개
- [2차] 연극 분야 중진 그룹 -**

□ 회의 개요

- 회의명 :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중장기 운영 방향성 모색을 위한 좌담회
- 일 시 : 2019.1.23.(수) 16:00~18:00
- 장 소 : 대학로예술극장 지하 1층 연습실2
- 참석자 : 총 15인(예술인 패널 4인, 예술위 11인)

구분	성명	현직
연극 분야 중진 예술인 패널 4인 (가나다순)	류근혜	연출가, 한국여성연극협회 회장
	문삼화	공상집단 똥딴지 대표, 서울연극협회 부회장
	박장렬	연출가, 극장나무협동조합 이사장
	최용훈	극단 작은신화 대표
내부 11인	조기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용분야 위원, 박두현 공연예술본부장, 장계환 극장운영부 부장, 진용남 무대예술부 부장 외 극장운영부 직원 7명	

□ 주요 논의 사항

- 공공극장으로서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의 운영 방향성
-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의 효율적인 운영 조직 체계
- 극장 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

□ 현장 논의 내용

※ 발언자 표기는 편의상 '패널(예술인 패널)'과 '진행자&위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으로 구분합니다.

진행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일반현황 소개. 2018-19년도 사업예산 및 기획 사업, 대관 현황, 극장별 공연 실적 등 공유 후 논의 주제 설명

[안건1] 공공극장으로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운영 방향성

진행자: 극장 운영 방향에 있어 크게 4가지 관점에서 보면 제작·다목적·대관·전용극장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현재 다목적 극장이자 대관극장으로서의 위치에 있는데 향후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패널: 아르코예술극장의 존재 이유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 생각해보고 접근의 시각을 분명히 하면 좋겠다. 중장기 계획과 변모의 과정이 예술위를 위해 디자인되기 보다는 예술현장의 컨디션을 먼저 파악한 후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은 현장 극단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함 아니던가.

현재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들의 환경이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술위에서 사이즈가 좋은 소극장들을 더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 아르코예술극장도 소극장의 경우 문을 활짝 열어두시면 좋겠다. 상주인력을 두기 어려운 극단들 입장에서는 좋은 스태프들로 다각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극장이 너무도 필요하다.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게 예술위 아닌가.

패널: 대관공연과 기획공연의 경우 늘 딜레마이다. 기획공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들이 사실상 적다. 미리 기획을 해서 1년 정도는 준비시간을 거쳐야 하는데 보통 발표 후 겨우 6~7개월 준비하다보면 미흡해지는 부분이 많다.

패널: 기획공연도 대극장은 괜찮지만 소극장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극단은 홍보마케팅도 잘 안되고 인력도 부족한 현실인데 그런 단체들에게 소극장을 빌려줘야 한다. 허름한 소극장에서 공연한 후보다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한 후에 실제로 단체 후원회의 가입률이 높아지는 걸 보았다. 누구를 위한 계획인지에 먼저 포인트를 두고 정책을 짜야 한다.

패널: 예술인들이 어디서 하든 열심히 하면 된다 하지만, 사실 어느 무대에 오르느냐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실례로 부모의 반대를 겪고 있던 한 연극인 후배가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공연한 후 결국 허락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 있다.

- 패널:** 현장 사람들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전용극장은 반대한다. 기획제작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홍보하고 늘릴 필요가 있다. 그동안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 기획공연을 일부 올리기도 했지만 뭐가 있었는지 인지 자체가 없었다. 정체성을 부여하려면 기획제작 공연이 늘어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 예술감독제가 꼭 필요하다.
- 패널:** 극장의 색깔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대학로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대학로에서는 빨간 벽돌 극장에서 공연한다는 것 자체가 위상이다. 링컨센터에서 무슨 공연 하는지 아나. 그냥 극장이 좋다 하니 유명한 거다. 극장 기획공연으로 인해 색깔을 더 부여한다면 좋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좋은 극장으로서의 위상을 가진 입장에서 많은 단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방향이다.
- 패널:** 10년 전 내가 극장장이자 예술감독이던 시절, 극장 방향성을 고민할 때 접목했던 부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다. 축제 대관과 일반 대관, 기획공연들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어려움 충분히 이해한다. 민간예술에 대한 공간 지원 취지에서 당시에는 일반 대관이 아닌 기획 대관의 형태를 고집했었다. 예술감독으로서 내가 담보하겠다는 전제 하에 책임지고 모든 장르를 선별했다. 퀄리티 있는 지원에 집중하면 좋겠다. 아르코예술극장은 ‘어떤 공연이든 안심하고 볼 수 있는 극장’, ‘이곳에 오면 실망하는 일은 없다’ 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극장 운영체계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술위 직원들은 순환보직 체계이고 운영자문위원회도 매년 바뀌기 때문에 책임성과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기획공연의 방향성도 계속 바뀌니 문제다. 연극 무용 분야별로 예술감독을 두고 충분히 협의 하에 책임 있게 운영하려면 예술감독제가 있어야 한다. 운영자문위원의 도움도 받아가며 예술감독이 책임 맡아 끌고 갈 수 있게끔 힘을 모아줘야 여러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
- 패널:** 예술감독제에 대한 부분 동의한다. 작품 퀄리티에 따라 예술감독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학로라는 엄청난 시장터의 딱 중앙에 자리한 극장인 만큼 대학로 현장 커뮤니케이션 또한 소홀히 하지 말아 달라. 소극장들과 더불어 필요하다면 상인회와의 소통도 중요하다. 대학로의 특수성을 늘 염두에 두고 지역과의 협업과 상생도 극장 운영 방향에 꼭 반영해야 한다.
- 패널:** 대관 신청에 나이제한이 있는 것도 불만스럽다. 누구든 지원할 수 있게 문을 더 열어 달라. 또 해외 유수의 극장들에는 모두 아카데미 사업이 있는데 아르코예술극장에는 없다. 일부 있다 해도 그동안에는 방향성과 지속성이 없

었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모두 연습실, 스튜디오, 로비, 앞마당 등 좋은 공간들이 많은데 이를 활용해 아카데미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쉽다. 특히 아르코예술극장 로비처럼 굉장히 좋은 공간을 어떤 식으로 개방할지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른 것 같아 안타깝다. 아카데미 사업도 방향성을 가지고 현장과 맞닿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민해보면 좋겠다.

패널: 예술의전당과 달리 대학로라는 입지를 가진 이상,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만의 역사가 아닌 대학로의 역사를 담아내야 한다. 홍보 채널에 있어서도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뿐만이 아닌 대학로 소극장들의 공연 한 줄이라도 더 소개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배려가 큰 파급효과다. 아르코예술극장이 가진 영향력과 역사는 대학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작은 채널이라도 마련해주면 좋겠다. 필히 현장의 파급효과를 생각해서 극장의 운영방향을 잡아 달라.

패널: 그밖에 세부적인 몇 가지 추가하자면, 하우스매니저 교육과 기자재 지원도 요청하고 싶다. 예술지향적인 극장으로서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만큼은 관객 뿐만 아니라 예술가도 충분히 대우해주는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객이 오기 전 예술가들을 먼저 만나는 하우스매니저와 티켓마스터들에게도 예술가에 대한 인지도교육이 좀 더 보강되면 좋겠고, 재정환경이 열악한 단체가 대부분인 만큼 무빙 등 여러 기자재에 대한 보충 지원도 필요하다.

[안건2]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의 효율적인 운영 조직 체계

진행자: 조직의 변화로 인해 그동안 극장 체계가 여러 번 흔들렸던 게 사실이다. 극장장과 예술감독의 겸임, 예술감독제, 운영위원회 체제 등 그동안 다양한 방식의 운영을 거쳐보았지만 여전히 효율적인 방향에 대해 고심 중이다. 예술위 속에서의 공공극장이라는 위치, 대학로 역사 위의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장에 계신 예술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패널: 예술위에서 순환보직 시스템은 피할 수 없지 않은가.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극장 시스템이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패널: 예술감독이 가장 상위에 있고 그 아래 극장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테크니컬 감독이 함께 품격을 올려줘야 한다. 다시 말해 극장장의 역할로서 행정감독과 테크니컬 감독이 함께 예술감독을 받쳐줘야 한다. 예술감독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의 소통 구조를 병행하며 극장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패널: 그렇다고 국립극단처럼 상주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은 오히려 그래서는 안된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많은 대관 문제에 치이는 것은 숙명이다.

패널: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의 예술감독은 기획제작공연에만 집중할 자리가 아니다. 모든 대관까지 컨트롤해야 하는 위치다. 물론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자료도 면밀히 봐야겠지만,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선정할 권한과 이에 대해 무한 책임질 의무를 가져야 한다. 최종 결정을 심사위원회에만 맡기면 작품의 질이 하향화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목숨 걸고 책임질 수 있는 예술감독이 있어야 한다.

위원: 현재 예술위 위원들도 책임심의를 못하는 상황에서 예술감독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는 게 맞을지 의문도 든다. 위탁경영과 같은 시스템은 어떠한가.

패널: 반대한다. 위탁경영을 받는 입장에서 예술성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심도 있게 할 수 있을까. 예술위 위원들이 책임심의를 못하는 상황이니 오히려 예술감독에게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들이 적당선에서 끝나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기획은 물론이고 대관에서조차 예술감독은 꼭 필요하다.

패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르코예술극장은 공연예술계의 품격을 지켜내는 마지막 보루다. 어떻게 품격을 유지하느냐의 게임이다. 예술감독이 그 품격에 대한 초이스와 권한, 무한책임과 무한책임감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지금껏 그 역할이 부재했기에 지금 이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정말 ‘목숨 걸고’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지닌 예술감독이 극장장 선위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예술감독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패널: 공연계가 이제는 협회, 축제 등 너무나 다변화되어 있는데 예술위 행정체제에서는 그걸 받아칠 능력이 없다. 여러 분야의 조율 역할은 예술감독의 몫이다. 극장은 사람이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은 곳인데, 상근하지 않는 운영위원이 무슨 내막을 알겠는가.

패널: 무용, 연극, 다원, 전통 등 여러 분야가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한 사람이 총괄해야 한다. 예술에서의 공평이란 걸 따질 수 있다. 숭한 역사와 의견을 수렴하면서 예술적 지향을 가지고 이끌어야 한다. 무용과 연극 각각 지원PD를 둘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1명의 예술감독제로 가야 한다.

패널: 지금은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걸 서로에게 미루기 바쁘지 않은가. 오히려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지경이다. 하지만 행정감독과 테크니컬 감독이 서포

트하는 상위의 예술감독은 무한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은 기획제작 공연 비율과 상관없이 대관까지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예술감독이 꼭 있어야 극장 정체성을 가져나갈 수 있다. 극장이 정책적 판단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 앞으로 조직체계가 잘 정립되길 바란다.